

# 최대규모 선수단 2925명... 韓 최다선수 출전 144명... 동계 역사상 최다 금 102개

## 'D-8' 숫자로 보는 평창올림픽

최대·최다 등 동계 역사 새로 써  
美·日·英 역대 최다선수단 파견  
한국, 금 8개 등 최고성적 기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이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2014년 소치대회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평창에 집중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눈 앞에 둔 강원도 일대는 현재 대회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평창올림픽 전용 도로들의 정비도 순차적으로 완료되고 있으며, 선발대가 입주해 있는 평창·강릉의 선수촌은 오늘 개촌식을 연다.

5만5000명의 자원봉사자, 대회 운영요원 등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대회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다. 안전 올림픽에 대한 준비도 이미 완료됐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해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상공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마크를 그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만에 한국 땅에서 펼쳐질 올림픽. 역대 최대·최다 규모를 확정된 만큼 그만큼 기대가 높고 화려한 면면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된다.

◆92개국·2925명 출전...최대 규모

지난 30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전날 대회 참가 신청 마감(29일 오전 6시 기준) 결과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을 마쳤다. 이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 기록은 2014년 소치 대회 당시 88개국, 2780명이 최대였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는 82개국 2566명, 2006년 토리노 대회에는 80개국 2508명이 출전했다.

출전하는 선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총 242명의 선수가 출전 등록을 마쳤다. 뒤이어 캐나다가 226명, 스위스가 171명이다. 스위스의 경우 역대 동계올림픽 파견 선수단 사상 최대 규모다.

도핑 조작으로 국가 자격 출전이 금지된 러시아는 4번째로 많은 규모인 169명의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다.

또 일본은 역대 해외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123명을 평창에 파견하고, 뉴질랜드도 2006년 토리노 대회보다 3명 많은 21명의 선수로 팀을 꾸렸다. 영국 역시 역대 최다인 59명의 선수를 내보낸다.

### ◆역대 최다 선수 확정된 한국

한국은 홈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역대 가장 많은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낸다. 15개 전 종목에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메달을 노린다.

이는 2010년 밴쿠버 대회(5종목 46명)

의 3배이자, 2014년 소치 대회(6종목 71명)의 2배 규모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고 뒤늦게 평창올림픽 대열에 합류한 북한도 5개 종목, 22명의 선수가 출전을 확정했다.

홈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인 만큼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 중이다. 최다 규모에 걸맞게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종합순위 5위를 목표로 한다.

### ◆금 100개 넘는 첫 대회로

평창올림픽은 참가국·참가 선수 수가 많거나 많은 메달이 걸린 대회다. 세부 종목 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평창올림픽은 7개 경기, 15개 종목, 102개 세부종목으로 펼쳐진다. 세부 종목은 소치 대회보다 4개 늘어난 것으로 스노보드 빅에어, 매스스타트, 컬링 믹스더블, 알파인 스키 혼성 단체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은 동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100개가 넘는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로코물 한 번 더?... 교복입고 하이틴작품도 하고파”

(로맨스코미디)

### ★스타인터뷰 드라마 '저글러스:비서들' 최다니엘

배우 최다니엘이 3년 만의 복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진지할 줄만 알았더니 로맨틱 코미디까지 자유자재다. '복귀작'이라는 말이 낯설 정도.

생각해보면 최다니엘은 늘 그랬다. 어느 작품에서든 꼭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과하지 않게, 물 흐르듯 쉬어 들어갈 줄 아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다.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KBS 2TV '저글러스:비서들'(극본 조용/연출 김정현 강수연, 이하 저글러스) 종영 인터뷰를 위해 만난 최다니엘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잃지 않았다.

가벼운 농으로 인터뷰를 시작한 최다니엘은 '저글러스'를 통해 복귀하게 돼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대작이 아니었음에도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저글러스'는 기대작으로 주목 받은 작품은 아니었다. 그러나 근래 보기 드물었던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월화극 동시간대 1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최다니엘은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면서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스스로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는 "형들과(강)혜정이 누나를 제외하면 제가 제일 나



KBS 2TV 월화드라마 '저글러스:비서들' 스틸컷.

이가 많더라.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 까지도 더 여유가 생겼고, 복귀작이란 부담감과 긴장감에서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기면서 가자는 생각이었죠."

최다니엘은 극중 타인의 관심, 그들과의 관계를 전면 거부하는 남치원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 극 초반 철벽형 인간이었던 남치원은 비서 좌윤이(백진희 분)에게 마음을 열고 연인으로 발전, 알콩달콩한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실제 연애 스타일은 어떨냐"는 질문에

'철벽남' 남치원 역으로 열연 코믹과 로맨스 넘나들며 호평  
"상대 배우가 돋보이는게 좋아 시즌2, 할 수만 있다면 찍고파"



최다니엘은 호탕하게 웃으며 "연애할 때 애정 표현 같은 걸 잘 못하는 편이긴 하다"고 답했다. 이어 "장난 치는 건 좋아하는데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건 연 단위로 걸리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백진희와의 '케미'로도 화제를 모았던 바, 앞선 작품에서도 유난히 상대 배우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았던 최다니엘은 그 이유를 두고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답을 내놨다.

"제가 쌍꺼풀도 없고 부리부리하게 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생겨서 상대 배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요. 하하. 작품에서 제 상대가 더 예쁘게 나오는 게 좋아요."

"가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잘 안 나는 느낌도 있다"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실력설렁 하는 거 같다고 할 때가 있다. 그럼 저는 꼭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상대가 더 부각돼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봤다. 뭐든 좋다"고 말했다.

나 아닌 타인을 먼저 생각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나의 움직임이 더욱 잘 보이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터. 그럼에도 최다니엘이 이렇듯 '밸런스' 하나만을 보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는 "20대 때는 시기적으로 주어진 일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 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복귀작을 '로코물'로 잘 마친 만큼 차기작에서도 한 번 더 '로코'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최다니엘은 "아직 크게(차기작을) 생각해보진 않았다. '저글러스'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려고 한다"면서 "로코"를 한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장르물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저글러스' 시즌2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청이 줄을 잇는 만큼 시즌2 출연에도 욕심을 보였다. 그는 "시즌2를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하지만 하게 된다면 저도 꼭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소 영뚱한 바람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바로 '교복' 입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것. 그는 "20대 때도 교복 입는 역할을 못 해봐서 꼭 해보고 싶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어느덧 데뷔 14년 차에 접어들어 그가 하이틴 작품을 꿈꾼다고 밝힐 줄이야. 이렇듯 유쾌한 그에게도 슬럼프는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다니엘은 "20대 때 잠시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곧 "그런 시간이 그런 필요했던 것 같다. 덕분에 욕심 안 부리고 유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대'라는 터닝포인트를 기점으로 성숙해져 돌아온 최다니엘. 그의 복귀 열전은 이제 시작이다. 최다니엘이 보여줄 유쾌한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민서 기자 /사진=케이와이드

**오늘의 날씨**

2월 1일

음력 : 12월 16일

수도권 날씨

-8 ~ 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36 | 해질 / 17:55

연천 -15/0

동두천 -13/2

가평 -14/2

파주 -15/0

서울 -8/1

양평 -11/3

인천 -8/0

수원 -9/-1

용인 -9/-1

평택 -10/2

백령도 -5/-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국악계 큰별' 가야금 명인 황병기 별세

향년 82세, 사인은 폐렴

'가야금 명인' 황병기 교수가 별세했다. 향년 82세.

故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31일 오전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3학년 때인 1951년부터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해 고등학교 시절 국립국악원에서 가야금 명인 김영윤, 김윤덕, 심상건을 사사했다. 대학 2학년 때 KBS 주최 전국 국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해 음악계 주목을 받았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 교수. /롯데문화재단

이후 1974년부터 이화여대 음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활동했다.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하버드대에서 객원교수

로 지냈으며 1986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열기도 했다. 200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맡았다.

국악 창작 활동에도 매진한 고인은 1975년 명동국립극장에서 발표한 대표작 '미궁'을 비롯해 신라음악을 되살린 '침향무', 신라고분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유리그릇에서 영감을 얻은 '비단길' 등 약 60년 가까운 창작활동을 해왔다.

고인의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 22호에 마련됐다.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이며 발인은 오는 2월2일이다.

/신원선 기자 tree634@